

2008. 5. 5 제190호

세계도시동향

세계도시

2008. 5. 5 제190호

목 차

[벤치마킹 사례]

영국의 생태탐방로 ‘코츠월드 웨이’(Cotswold Way)

문화·디자인

1. 강에서 폭포 관람 (뉴욕)
2. 중소기업이 돈 벌도록 디자인 지원 (런던)
3. 박물관 관람, 첫째 주 목요일엔 밤늦게까지 가능 (런던)
4. 종교시설 무료 공개해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도시로 (런던)
5. 대중교통만으로도 문화재 곳곳 탐방 (파리)
6. 전차 대로변, 문화공간으로 변화 (파리)
7. 자전거 정류장에서 관광정보가 휴대폰 속으로 (파리)
8. 놀거리, 볼거리 풍부한 운하로 탈바꿈 (파리)
9. 역사적 건조물 보존으로 품격 있는 도시 (도쿄)
10. 전통문화, 디지털 박물관이 잇는다 (교토)
11. 박물관 무료 개방 해볼까? (북경)

목 차

도시환경

12. 무료 야생화 씨앗, 발코니에 활짝 핀다 (독일 슈투트가르트市)
13. 공무원이 먼저 도심 자전거 공유 (캘리포니아州 롱비치市)
14. 고효율·저소비 주택 개조 지원 (런던)
15. 기후변화 대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야 (런던)

도시교통

16. 주말에 차 빌려타고 썩썩! (런던)
17. 하이브리드 차량은 주차가 공짜 (로스앤젤레스)
18. 지능형 교통시스템 활용해 교통체증 30% 줄인다 (도쿄)

도시계획·주택

19. 지역별 맞춤주택 정책 (도쿄)
20. 신청사 정비로 시민 서비스도 정비 (요코하마)

[벤치마킹 사례]

영국의 생태탐방로 ‘코츠월드 웨이’(Cotswold Way)





<주요 내용>

- 영국의 생태탐방로인 ‘코츠월드 웨이’(Cotswold Way)는 30년 이상을 탐방로로 활발히 이용돼 오다가, 오랜 시간동안 여러 단체의 노력과 이곳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받아 1998년 코츠월드를 국립탐방로(National Trail)로 개발해도 좋다는 영국정부의 승인을 받음.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생태탐방로로서의 루트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2007년 5월 24일 생태탐방로로 공식 지정됨.
- 코츠월드를 생태탐방로로 지정한 이후에도 글로스터셔(Gloucestershire) 주의 회와 ‘램블러스 협회’(Ramblers Association), ‘코츠월드 순찰 자원봉사단’(Cotswold Voluntary Warden Service) 등이 연합단체를 구성해 탐방로 개선과 활용을 위해 꾸준히 관리하고 있음.
 - 26명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그룹은 매달 생태탐방로를 순찰하고 모니터링함으로써 문제점을 지적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함.
- 코츠월드 웨이는 잉글랜드 남서부에 위치한 164km 길이의 생태탐방로로, 길 주변에 아름다운 마을과 역사 유적지가 많음.
 - 생태탐방로 전 구간을 탐방하는 데 평균 7일이 소요됨.
 - 보행자는 모든 구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전거나 말을 이용하는 탐방객은 전체 구간의 19%만 이용할 수 있음.
- 생태탐방로 표시는 도토리 모양임.
 - 이동수단에 따라 보행자를 위한 통행로(Footpath), 보행자 및 말·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탐방로(Bridleway), 보행자 및 말·자전거·자동차 이용자를 위한 탐방로(Byway)로 구분됨.
 - 색깔을 달리 표시해 탐방객이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함.



생태탐방로 표지판

<표 1> 생태탐방로 종류 및 상징(Symbol)

| 상징(Symbol) | 종류 및 내용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국가생태탐방로(Britain's National Trails)를 의미함. - 도토리 모양으로 표시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만을 위한 탐방로로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함. - 토지 소유자의 인가 없이 이용 가능함. - 자전거, 말, 자동차 이용은 불법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와 말·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탐방로로 파랑색 화살표로 표시함. - 토지 소유자의 인가 없이 이용 가능함. - 자동차 이용은 불법임.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자, 말·자전거·자동차 이용자 모두 이용 가능한 루트임. - 빨강색 화살표로 표시함. |

<해설 및 평가>

- 자연보전의 일환으로 탐방로를 조성·관리함으로써 주변 자연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
 - 영국의 생태탐방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방의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지역을 도보나 자전거, 말을 이용해 통과하는 장거리임.
- 자연 속에서 여가를 보내고자 하는 시민 수요에 대처함.
 - 주 5일 근무와 휴가문화 정착 등 여가활동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광문화가 크게 활성화됐음.
 - 도시민은 조용한 자연환경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으며 자녀를 동반한 가족의 경우 자연 속에서 교육 효과를 얻고자 함.

<서울시정의 현황과 문제점>

○ 자연과 함께하는 여가활동 수요 증가

- 다양한 축제, 공연 등 여러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도시 내 자연공간을 이용하는 시민 수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표 2> 북한산 국립공원 탐방객 현황

(단위: 천명)

| 연도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탐방객 수 | 4,175 | 4,035 | 4,205 | 3,951 | 4,708 | 5,411 | 5,075 | 4,875 |

자료: 국립공원관리공단

<표 3> 서울시 공원 이용객 현황(2006)

(단위: 천명)

| 구분 | 자연공원 | | 근린공원 | |
|--------|-------|-------|--------|-------|
| | 남산공원 | 시민의 숲 | 여의도공원 | |
| 연간 이용객 | 8,400 | 1,636 | 10,497 | |
| 1일 이용객 | 평균 | 23 | 4.1 | - |
| | 비수기 | 10 | 0.5 | 25 |
| | 성수기 | 30 | 7 | 50~60 |

자료: <http://parks.seoul.go.kr>

○ 생태자원 개발에 소극적

- 최근 문화가 사회 전반의 주요 키워드가 되면서 다양한 관련 사업이 이뤄지고 있음. 하지만 도시민의 경우 도시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자연을 접하면서 재충전을 위한 심신의 휴식을 원하는 수요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함.
- 산림, 공원, 하천 등 생태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은 시민 및 어린이의 자연체험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음.
- 생태자원의 추가 개발을 통해 기존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미래 수요에 대처할 필요가 있음.

<벤치마킹 시행방안>

- 중앙정부는 생태탐방로를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가치 있는 자연자원 및 생태적 배경을 가진 문화·역사자원을 좀더 쉽게 찾고,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성된 도보 중심의 길’이라고 정의했음.
 - 환경부 자연정책과에서 2007년 전국 단위 국토생태탐방로 조성계획 연구와 함께 2008년부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음.
 - 국가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탐방로를 국가생태탐방로(National Ecological Trail)로, 권역이나 지역 차원에서 의미있는 생태탐방로를 권역·지역생태탐방로(Local Ecological Trail)로 구분함.
 - 권역·지역생태탐방로란 지역의 여가 공간 및 타지역 주민의 자연체험을 위한 교육·여가활동을 위해, 권역·지역에서 생태탐방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자원을 연결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도적으로 조성한 길임.
- 서울시의 생태자원 유형을 분류하고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이나 생태경관 보전 지역 등을 생태탐방로로 지정하고, 생태탐방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시설물 및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함.
 - 서울시 자연생태과는 생태자원 관리업무를 보완해 생태탐방로 지정 및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환경단체와 연계해 관리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야 함. 또한 생태탐방로 안내원을 양성해 시민의 생태관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벤치마킹 기대효과>

- 서울시의 생태탐방로 지정 및 조성사업은 국가계획에 앞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사례로서, 다른 시·도의 벤치마킹대상이 돼 서울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음.
- 서울시민이 자연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생태자원 제공으로 시민의 생태체험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음.

/송인주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injusong@sdi.re.kr)

문화 · 디자인

1. 강에서 폭포 관람 (뉴욕)

- 뉴욕市는 2008년 4월부터 市 강 주변 4곳에 인공폭포를 건설하는 ‘뉴욕市 폭포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음.
 - 뉴욕항의 ‘Governors Island’에 1개, East River에 맨해튼市와 브룩클린市 방향으로 각각 1개, 브룩클린 다리 아래에 1개 등 27~36m 높이의 인공폭포를 설치할 예정임.
 - 덴마크 출신 예술가가 디자인을 맡음.
 - 市는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미화 효과뿐 아니라 더 많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봄. 맨해튼市나 다른 주변 도시에 비해 낙후됐던 ‘Pier 35’ 지역에도 새로운 건설 바람이 불 것도 기대하고 있음.
 - 뉴욕市 인공폭포가 완공될 경우 3개월간 5500만 달러(약 5억 4000만 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기대됨.
 - 2005년 센트럴 공원에 7500개 이상의 현수막을 걸어놓는 행사를 열어 약 2억 5400만 달러(약 25억 30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한 바 있음.



(www.csmonitor.com/2008/0328/p12s01-alar.html?page=1)

>>> 전문가 검토의견

- ‘뉴욕市 폭포’ 프로젝트는 뉴욕市와 공공예술기금(Public Art Fund)이 공동 기획한 것으로, East River를 따라 설치된 네 개의 인공폭포가 뉴욕市的 새로운 명물이자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임.
 - 인공폭포는 East River의 수질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테마로 설계됐음.
 - 유람선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둘러볼 수 있으며, 투어 과정에서 작가의 상세한 해설을 들을 수 있어 방문객의 지적 욕구를 채워줄 것으로 기대됨.
- 공공예술은 예술인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술작품을 배치함으로써 공간 가치를 재생산하는 작업이므로 시민과의 교감이 중요함.
 - 서울시도 도시 갤러리 프로젝트, 디자인 서울 거리 조성 등 다양한 공공예술 사업을 시도하고 있음. 이들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민의 관심과 호응을 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백선희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seonbaik@sdi.re.kr)

2. 중소기업이 돈 벌도록 디자인 지원 (런던)

- 런던개발청은 350만 파운드(약 6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중소기업이 좀더 나은 디자인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디자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
 - 프로그램 운영은 왕립예술학교와 임페리얼 대학 간 디자인 파트너십인 ‘Design London’과 경영 컨설팅업체인 ‘Grant Thornton UK LLP社’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담당하고 있음.
 - 주요 프로그램인 ‘Design Demand’는 영국 통상산업부 지원단체인 디자인협회(Design Council)가 주관하고, 지역별로 진행 중임.
 - Design Demand는 영국이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창의산업으로 탈바꿈하는 데 디자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로 2006년부터 추진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춘 지원방안이 다각도로 도입되고 있음.

- 컨소시엄과 런던개발청은 Design Demand를 통해 런던지역 소규모 업체의 현황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디자인 비즈니스 상담, 기업대표 및 중역을 대상으로 한 훈련과정, 각종 산업디자인 첨단시설 등을 제공할 계획임.

(www.lda.gov.uk/server/show/ConWebDoc.2548)

>>> 전문가 검토의견

- 영국 중앙정부의 디자인협회(Design Council)와 런던시 디자인협회(London Design Council)가 소규모 사업에서 디자인 분야 투자가 미비하다는 분석에서 출발해 공동으로 디자인 분야에의 적절한 투자 확대를 보장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이는 적극적으로 디자인 수요를 창출하고 확대해 디자인 분야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
- 경영 컨설팅업체인 Grant Thornton社가 “좋은 디자인이 성공적인 사업의 주요 동력으로 인식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바란다.”고 말한 것처럼 소규모 사업에서 디자인 분야의 수요 창출 프로그램을 적용해 중소기업과 디자인 분야 산업이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판단됨.

/박현찬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hcbahk@sdi.re.kr)

한줄 뉴스

- 베를린, ‘세대 간 조화를 이루는 주거’를 위한 문의처 마련
- 캘리포니아주, 상업건물 옥상과 모하비 사막에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 로스앤젤레스시, 12단계이던 건축허가 과정을 2개 부서의 최종허가로 간소화

3. 박물관 관람, 첫째 주 목요일엔 밤늦게까지 가능 (런던)

○ 런던시 타워햄릿區와 잉글랜드 예술진흥위원회는 지역 문화예술시설, 전문 주간잡지인 ‘타임아웃 런던’ 등과 손잡고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런던 동부지역 80여 개 박물관과 미술관 등을 저녁 9시까지 야간개장하는 ‘첫째 주 목요일’(First Thursdays) 프로그램을 시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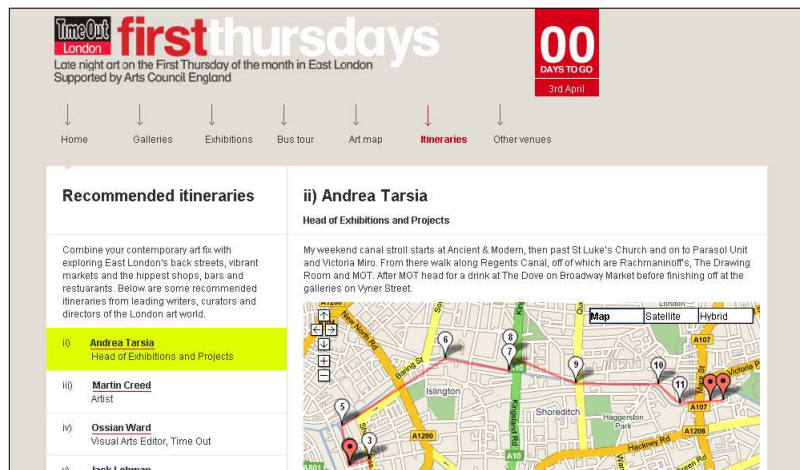
- 런던 동부지역은 수천 명의 예술가가 거주하는 유럽 최대의 예술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음.

·금융가인 도심 지역에 인접하고 있어 사무직 종사자에게 새로운 문화 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타임아웃 런던이 관리하는 홈페이지(www.firstthursdays.co.uk)에서 큐레이터, 작가, 화가 등이 해설가로 동승하는 무료 예술버스 투어를 신청할 수 있음.

·홈페이지에는 시설 관련 지도, 다양한 주제와 지역별 여정, 미술관 전시내용 등을 소개해 놓음.

·인근 식당 등에서 준비하는 이벤트도 소개하고 있어 지역사회 경제도 함께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됨.



홈페이지에서 미술관 추천 경로 제공

(www.artscouncil.org.uk/pressnews/press_detail.php?id=847&browse=archive)

>>> 전문가 검토의견

- 1997년부터 시작한 베를린市の ‘박물관의 긴 밤’, 2002년부터 시작한 파리의 ‘백야축제’와 삿포르市的 ‘컬처나이트’ 등은 모두 박물관과 미술관 및 관련 예술시설을 야간에 개방하는 프로그램임.
- 런던市の ‘첫째 주 목요일’(First Thursdays) 프로그램은 잉글랜드 예술진흥위원회(Arts Council England)의 지원으로 무료 운영 중임.
- 평소 시간 제약으로 문화시설을 방문할 수 없었던 도시민을 위한 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에서 출발한 이들 프로그램은 현재 각 도시의 대표적인 야간문화 관광자원으로 발전해가고 있음.

- 서울시 역시 2008년 도심부 중심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등을 야간 개방하는 문화프로그램인 ‘서울의 열린 밤’(Seoul Open Night, 가칭)를 계획하고 있음.
- 서울시민을 위한 야간문화 향유기회 제공을 목표로 성과를 쌓아간다면, 프로그램이 좀더 풍요로워질 것임. 프로그램 발전을 위해서는 작가나 화가, 전문가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모색돼야 하며, 다양한 야간문화 자원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할 것임.

/백선희 창의시정연구본부 부연구위원(seonbaik@sdi.re.kr)

4. 종교시설 무료 공개해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도시로 (런던)

- 2008년 5월 21일 런던 시내 주요 종교시설을 시민에게 무료 공개하는 오픈데이 행사(The Places of Worship Open Day)가 열림.

- 런던을 대표하는 종교시설은 런던의 문화적 다양성과 전통을 상징함. 런던을 방문 중인 관광객에게 풍부한 문화자원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젊은 세대가 종교로 대표되는 문화자산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단순히 공간을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일 종교시설별로 강연 및 다양한 문화 이벤트도 열릴 예정임.

- 5월 21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문화 다양성을 위한 대화와 발전의 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런던시가 주최하고 런던시 주요 종교단체 연합인 ‘종교와 문화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The Coalition to Defend Freedom of Religious and Cultural Expression)에서 주관함.
- 런던시는 다양한 종교와 인종이 함께 살아나가는 다양성의 도시로, 런던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단체를 적극 후원하고 있음.
- 문화적 다양성은 관광 및 국제무역 활성화 등 경제 발전으로 이어짐.
- 여러 종교가 공존함으로써 인종과 종교 간 대립으로 인한 사회 불안정을 해소하는 역할도 강조되고 있음.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6513)

5. 대중교통만으로도 문화재 곳곳 탐방 (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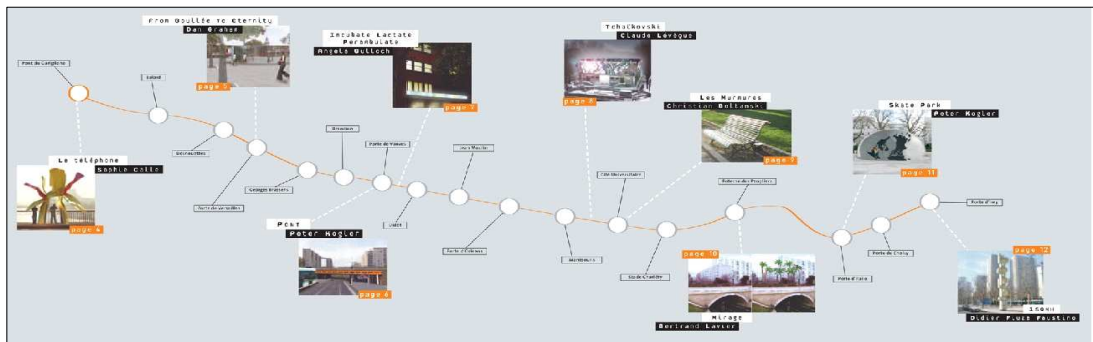
○ 파리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문화재를 보러 갈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Les Balades du Patrimoine’이라는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음.

- 현재 ‘파리와 교외 지역’, ‘파리 다리 위의 조각상’, ‘파리 분수의 어제와 오늘’, ‘중세 시대의 흔적을 찾아서’ 등 역사, 건축, 예술, 사회 각 분야별 23개의 주제로 서비스하고 있음.
- 지하철을 중심으로 지도 위에 테마별 동선을 그리고, 각 장소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과 특징을 소개함.
- 설명이 첨부된 지도를 인쇄해 들고 다니면서 문화재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함.
- 시 홈페이지에는 주기적으로 새로운 테마와 동선을 구성해 홈페이지 초기화면 문화재 관광 가이드 메뉴에서 소개함.

(www.paris.fr/portail/Culture/Portal.lut?page_id=102&document_type_id=4&document_id=22132&portlet_id=12697)

6. 전차 대로변, 문화공간으로 변화 (파리)

- 파리는 유명한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을 공공장소 곳곳에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프랑스 정부의 문화·커뮤니케이션부 조형 예술부서 주도로 400만 유로(약 6억 2500만 원) 예산을 들여 진행 중임.
 - 2002년에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도시 및 경관 계획의 하나로 파리 시내의 전차 노선을 따라 작품을 전시해 전차 대로변을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음.
 - 이번 프로젝트는 대중에게 현대미술을 더욱 가깝게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
 - 파리 시민은 전차를 타고 내리며 공공시설물로 설치된 현대 미술을 감상하고 이용하는 두 가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됨.



(www.paris.fr/portail/Culture/Portal.lut?page_id=102&document_type_id=4&document_id=28803&portlet_id=17315)

한줄 뉴스

<파리>

- 미술작품 사고파는 '아트 파리 2008' 개최
- 관리비 등 면제되는 市 소유 건물 임대정보 제공

7. 자전거 정류장에서 관광정보가 휴대폰 속으로 (파리)

- 파리는 벨리브 자전거 정류장 20여 곳에서 각 지역의 관광정보를 휴대폰에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는 모비가이드(Bluetooth MobiGuide) 시스템을 운영 중임.
 - 이 시스템은 6개월 전부터 파리지 1·2·4區에서 시험운영됐음. 이번에는 내용이 좀더 풍부해져 각 구청의 최신 소식과 일정, 대중교통수단 정보, 스포츠와 문화행사, 행정 서비스, 응급번호 등도 제공함.
 - 지역 상세지도도 있어 본인의 현재 위치도 쉽게 찾을 수 있음.
 - 파리지 홈페이지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벨리브 정류장을 항공사진과 함께 자세히 안내하고 있음.
(www.paris.fr/portail/Economie/Portal.lut?page_id=7903&document_type_id=4&document_id=30420&portlet_id=18210)

8. 놀거리, 볼거리 풍부한 운하로 탈바꿈 (파리)

- 파리는 최근 몇 년 동안 시를 관통하는 운하 주변을 새롭게 정비해 매력적인 관광명소로 탈바꿈함.
 - 파리 운하는 센느 생 드니와 오와즈, 에즈느 등 5개 지역을 관통하고, 일 드 프랑스 수도권 지역과 피카르디 지방에 걸쳐 있음.
 - 운하는 전체 130km에 이르며 전 지역을 배로 운행할 수 있음.
 - 유람선 관광, 운하 주변에서 자전거 타기, 카누와 카약 타기, 도보 산책, 낚시 등을 즐길 수 있음.
 - 파리는 이번에 제작한 운하 관광지도에 각 운하의 구역별 성격, 관광코스 안내, 운하 이용방법과 시간, 주변 문화재 및 박물관 정보, 주변 식당과 휴식처, 숙박시설, 기타 스포츠 시설 등을 총망라해 표시함.

- 파리市 홈페이지에서 운하 지도를 내려받을 수 있으며, 홍보용 운하 여행 동영상도 함께 볼 수 있음.

(www.paris.fr/portail/Environnement/Portal.lut?page_id=8439&document_type_id=5&document_id=4892&portlet_id=19674)

9. 역사적 건조물 보존으로 품격 있는 도시 (도쿄)

- 도쿄都는 품격 있는 도시 경관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를 역사적 건조물 보존을 통한 역사적 경관 형성이라고 보고, 역사적 경관을 지키고 좋은 경관을 만들기 위해 가치있는 역사적 건조물을 선정해 왔음.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다리 등 토목 구조물 가운데 건설한 지 50년이 지나고 지역의 역사적 경관 특징을 가지는 등의 특징을 지닌 건조물 중에서 역사적 건조물을 선정함.

- 가능한 건축 당시 상태로 보존돼 있어야 함.

- 2008년 4월 새롭게 선정된 2개의 건조물은 관동 대지진 이후 재건축된 씨름관(스모) 모양 디자인의 양국교(兩國橋)와 관동 대지진 이후 처음 건설된 직선적이고 강한 디자인이 특징인 언문교(言問橋)임.

- 향후 역사적 건조물의 경관적 가치가 계승될 수 있도록 都 소유의 역사적 건조물을 레스토랑으로 이용하는 등 개발 계획을 유도할 계획임.



都 소유의 역사적 건조물을 레스토랑으로 이용한 구오가사와라지

(www.koho.metro.tokyo.jp/koho/2008/04/rekiken.htm)

10. 전통문화, 디지털 박물관이 있다 (교토)

- 교토府는 천 년 이상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의 전통문화를 후세에 전할 수 있도록 교토에 관한 다양한 소재를 디지털로 기록·보존하는 ‘디지털 박물관’ 사업을 하고 있음.
- 교토의 특징을 영상으로 보존·기록할 필요가 있는 것을 선정해 만든 작품과 관광지, 문화시설, 전통 행사 등을 월별로 구성해 소개하는 ‘교토 12악장’이 있음.
 - 영상문화 진흥사업, 명화를 화상 및 영상으로 담은 디지털 회랑 등 문화예술 콘텐츠, 전통 산업의 개요 및 제작 공정 등을 소개하는 전통공예 콘텐츠, 교토의 전통요리를 아름다운 영상으로 소개하는 식생활 문화 콘텐츠 등도 있음.
- 교토 디지털 박물관을 통해 점점 희소화되고 있는 전통산업 기술과 문화 기능을 계승하고 대중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로 기대되고 있음.

(www.pref.kyoto.jp/it/10500040.html)

11. 박물관 무료 개방 해볼까? (북경)

- 북경市는 다른 나라에 비해 박물관이나 문화재 이용 요금이 비싸다는 평가 아래, 박물관 무료 개방 관련 좌담회를 개최해 대상 박물관을 발표할 계획임.
- 현재 북경市에는 모두 143개의 공공 박물관이 있으며 이 중 국립박물관은 38개, 시립박물관은 69개임.
- 市는 국립박물관을 점진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며 각 박물관 보조정책을 개선하는 동시에 박물관보호기금을 조성할 계획임.
 - 문화재를 보호하는 전제 아래 제한적으로 박물관 개방하며, 적정한 관람자 수를 정해 시민이 질서있게 관람하도록 하고 문화적 교양 및 공공질서를 함양하도록 할 예정임.

(zhengwu.beijing.gov.cn/bmfu/bmts/t940766.htm)

도시 환경

12. 무료 야생화 씨앗, 발코니에 활짝 핀다 (독일 슈투트가르트市)

- 독일 슈투트가르트市 환경자문기구는 봄을 맞아 시민이 발코니를 꽃으로 가꿀 수 있도록 야생화 씨앗을 무료로 나눠주고, 발코니를 친환경적으로 가꾸기 위한 조언을 제공하고 있음.
 - 주요 조언내용은 다음과 같음.
 - 토종 야생화는 단조로운 발코니를 다양하게 꾸밀 수 있고, 곤충이나 새의 서식공간 및 영양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친자연적 발코니에 적합함.
 - 담쟁이 종류의 식물도 자연적인 발코니를 만드는 데 적합함.
 - 토마토와 약초 같은 먹을 수 있는 식물로 가꿔도 좋음.
 - 뿌리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작은 화분을 이용하지 말고, 큰 화분을 이용하는 것이 좋음.
 - 화학비료 대신 자연친화적인 비료나 익충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임.
 - 환경자문기구는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식용 야생식물 목록도 시민에게 제공함.
(www.stuttgart.de/sde/menu/frame/ns_top_11021.htm)

>>> 전문가 검토의견

- 슈투트가르트市의 야생화 씨앗 배포 및 관리 조언은 발코니나 화단을 다양한 식물로 가꿀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실내공기 및 도시환경 개선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서울시는 푸른도시국에서 추진하는 녹화계약, 푸른서울 가꾸기 사업, 옥상공원화 지원사업 등을 통해 주택가 주변 자투리땅이나 건물 앞 공개공지, 민간건물 옥상 등에 관한 화단 조성계획을 제출하면 묘목 및 비료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시민이 발코니 등 원하는 개인공간을 녹화할 수 있도록 지원영역을 확대하고, 특히 토종 야생화 공급을 확대해 도시 생물상의 다양성을 도모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송인주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injusong@sdi.re.kr)

13. 공무원이 먼저 도심 자전거 공유 (캘리포니아주 롱비치市)

- 캘리포니아주 롱비치市는 최근 市 공무원에게 16대의 자전거를 제공해 도심 및 주변지역을 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는 ‘시티 바이크 공유’(City Bike Share) 계획을 발표함.

- 롱비치市 부시장은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이 대기오염을 막을 뿐 아니라 자전거로 이동하면서 차도와 인도, 식당과 주민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게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무원의 기름값 절감뿐 아니라 운동량 증가로 공무원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임.

(www.presstelegram.com/news/ci_8608351?source=email)

14. 고효율·저소비 주택 개조 지원 (런던)

- 런던市는 2008년 3월 25일 런던市를 포함한 동부 및 남동부 잉글랜드 지역의 일반 주택이 기후변화에 따라 받게 될 영향과 대처방법을 담은 보고서인 ‘Your Home In A Changing Climate Report’를 발표함.

- 보고서에 따르면, 런던市와 동부 및 남동부 잉글랜드 지역에는 2100만 명이 900여만 호 주택에 살고 있으며, 기후조건이 건축 당시와 현저히 달라지고 있어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남.

- 소규모 예산을 들여 기존 주택단지를 에너지 고효율·저소비형으로 개조할 경우 기후변화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주택의 경제적 가치와 생활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음.
- 주택 보수방법으로는 자치단체와 주택조합의 대규모 주거지 보수계획, 대대적인 수리정책, 개별 가정의 자체수리(DIY) 방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보수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주택이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대책이 필요함.

(www.london.gov.uk/trccg)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6593)

15. 기후변화 대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야 (런던)

- 영국 도시계획협회(Town and Country Planning Association)와 에너지협회(Combined Heat & Power Association)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에 있어 중앙정부의 의존을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커뮤니티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내용의 에너지 가이드라인을 작성함.

- 가이드라인은 소규모 풍력발전을 통해 주택과 학교, 공장이 자체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음을 강조함.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에너지 생산 노력은 환경보존뿐 아니라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밝힘.
- 저밀도의 교외지역 주택단지에서는 소규모 발전시설 설치가 더욱 효과적이며 전기 자체공급을 통한 경제적 혜택도 얻을 수 있음.

(www.planningresource.co.uk/bulletins/Planning-Resource-Daily-Bulletin/News/798363/Community-energy-guide-launched/?DCMP=EMC-DailyBulletin)

16. 주말에 차 빌려타고 썩썩! (런던)

○ 런던市는 휴일에만 차를 사용하거나 일주일에 몇 번 단기간만 운전하는 사람이 쉽고 저렴하게 차를 빌려 쓸 수 있도록 ‘카 클럽’(Car Club) 활성화 대책을 내놓음.

- 필요할 때만 쉽고 저렴하게 차를 빌려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비싸게 차를 사지 않아도 됨.

·차량 구입으로 인한 주차, 교통정체, 대기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

- 런던市는 도심 혼잡통행료 부과 등의 정책과 더불어 시민이 카 클럽을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2년까지 런던市 인구의 절반이 도보로 5분 거리만 가면 카 클럽 차량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현재 런던市에는 영국 내 카 클럽의 75%인 1000여 개 클럽이 성업 중임.

- 런던교통공사는 자치구와 협의해 카 클럽 소유 대여차량 대기장 및 승강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홍보도 돕고 있음.

- 런던市는 총 4년간 430만 파운드(약 84억 8000만 원) 예산을 카 클럽 활성화에 투입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150만 파운드(약 29억 6000만 원)를 집행함.

(www.carclubs.org.uk)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16454)

>>> 전문가 검토의견

- 카 클럽은 기존의 렌트카 산업과 카 셰어링(Car-sharing) 제도를 결합해 좀더 활성화하는 제도라 판단됨.

·3가지 모두 관건은 차량을 빌리고 반납하는 장소가 이용자의 수요와 맞아떨어지는 곳에 입지해야 성공 가능성이 있을 것임.

- 차량 소유 욕구의 근본 이유는 주거지에서 쇼핑, 친교위락, 자녀 픽업 등 가족 관련 수요와 출퇴근, 업무, 개인용무 등 직장 관련 수요로 대변될 수 있음.

·직장 관련 수요는 택시나 대중교통 등으로 어느 정도 대체가 가능하지만 가족 관련 수요는 대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주거지 인근의 장소 확보가 더욱 중요함.

·서울의 경우 시장 규모 예측과 주거지 인근 장소가 있는지 먼저 파악한 후 도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김순관 도시기반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sdigwan@sdi.re.kr)

17. 하이브리드 차량은 주차가 공짜 (로스앤젤레스)

○ 2005년부터 로스앤젤레스市 교통국은 깨끗한 공기를 만들고자 하이브리드 차량 운전자에게 시내 주차미터기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함.

- 2008년 3월 28일 시의회는 무료 주차 프로그램 시행 연장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만장일치로 찬성함.

·무료 주차 프로그램은 2011년 1월까지 연장되며, '깨끗한 차량'(Clean Air Vehicle)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에 한함.



Clean Air Vehicle 스티커

(www.dailybreeze.com/ci_8730743?source=email)

18. 지능형 교통시스템 활용해 교통체증 30% 줄인다 (도쿄)

○ 도쿄都는 경시청 및 도쿄 국토사무소와 연대해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지능형 교통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교통체증 대책을 실시하기로 함.

- ITS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해 사람과 도로, 차량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성과 체증 경감을 통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체제임.

- 도쿄都는 이번 대책을 체증이 심한 7개 노선에 우선 실시하기로 했으며, 운행 소요시간을 30% 줄이는 것이 목표임.

·주요내용은 수요예측 신호제어, 소요시간 안내시스템 활용, 도로시설 개선, 하역 주차장 정비, 홍보 캠페인 실시 등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8/04/20i49100.htm)

한줄 뉴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 댕기모기 퇴치 위해 야외텐트 병원 설치 등 긴급정책 도입
- 더 밝은 절전형 전구로 市 조명 교체

<영국>

- 스코틀랜드, 철도역 전구 수요를 동력발전으로 자체 공급 추진
- 기후변화 예방을 위한 도시계획법령 제정

19. 지역별 맞춤주택 정책 (도쿄)

○ 도쿄都는 도내 23區, 17市, 5町, 6村 공동으로 ‘도쿄도 지역 주택 계획’을 재검토하고 변경함.

- 도쿄都의 지역 주택 계획은 2005년 8월에 제정된 ‘지역에 있어서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공적 임대 주택 등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근거해 지역 주택 교부금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작성됨.
- 도쿄의 주택정책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영주택 공급이 중심이 돼 왔으며, 1974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는 특별구에서 해오던 사업을 都에서 담당함.
 - 1985년 이후 중산층을 위한 도민 주택이나 구민 주택정책을 추진해 오기는 했으나, 버블경제 붕괴 후 주택가격이나 집세 하락, 인구 및 세대 감소 등을 근거로 하는 주택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게 됨.
 - 도쿄都에서 종합적인 주택정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都 중심의 사업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역 주택 계획을 작성하고 공영 주택 정비 등 기간사업과 제안사업을 조합할 필요성이 대두됐음.
- 이 계획의 목표는 양질의 주택 시가지를 조성하고,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주택시장을 구축하며 도민의 요구사항에 적합한 주택 선택이 실현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 아울러 공영 주택을 시작으로 민간 주택을 포함한 주택 전체의 사회 안전망(Safety Net) 기능을 향상해 소자녀화 및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주거 안심을 확보함.

(www.koho.metro.tokyo.jp/koho/2008/02/gaikan.htm)

20. 신청사 정비를 시민 서비스도 정비 (요코하마)

- 요코하마市는 2009년 개항(開港) 150주년을 앞두고 신청사 정비를 검토하기 위한 '신청사 정비 구상 초안'을 정리함.
 - 현재의 청사는 개항 100주년이던 1959년 건설됐지만, 업무량 증가로 인해 본청 외에 주변 민간빌딩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음.
 - 이로써 연간 18억 엔(약 170억 원) 경비가 발생하고 업무의 분산화로 시민 서비스 질 저하, 시설이나 설비의 노후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음.
 - 신청사를 정비함으로써 기존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의 효율화 및 시민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시청사는 시민의 공통 재산이며 시민이 친밀감을 가지고 방문하는 장소로 요코하마市의 상징으로서 정비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임.
 - 요코하마市의 장기 비전에서는, 요코하마市를 '시민력과 창조력에 의해 새로운 요코하마다움을 만들어 내는 도시'로 봄.
 - 신청사 정비의 기본이념을 요코하마다움 창조, 협동 육성, 환경 배려, 방재, 장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등 5가지로 정함.
 - 정비될 신청사에는 사무실, 회의실, 서비스 시설(식당, 매점) 등의 기본 시설, 정보 제공이나 상담 등을 위한 시민 서비스 기능, 방재 거점에 적합한 위기 관리 기능 확충, 시민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나 협동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 등이 마련될 계획임.

(www.city.yokohama.jp/me/toshi/kikaku/chosya)

(www.city.yokohama.jp/me/toshi/kikaku/chosya/pdf/gaiyou.pdf)